

PLACE

찾아가는 현장 | 경기도 안산시
문화가 있는 여행 | 충청북도 청원 '청남대'
앞서가는 사람들 | 충청북도청 구정서 예산팀장

지방자치 꽃 피우는 그들을 만나다!

Place 섹션은 더 나은 지방재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코너. 지방자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그들을 만나다. 이번 호는 재정운용의 건전성·효율성·계획성이 종합적으로 우수하여 작년에 재정분석 우수 단체로 선정된 '경기도 안산시'와 더불어 지방예산 효율화 추진으로 올초 대통령표창을 받은 충청북도청 구정서 예산팀장을 찾았다. 문화가 있는 여행에서는 '대통령별장'으로 유명한 충청북도 청원의 '청남대'를 소개한다.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민 삶에 초록빛 '희망' 채우다!

— 안산이 바뀌고 있다. 과거 안산이 공장이 많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회색 빛깔이었다면 지금의 안산은 초록빛깔의 도시로, 사람살기 좋은 도시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도심녹지율을 자랑하는 도시이자 미래 수도권 최고의 관광도시를 꿈꾸는 안산을 찾았다.

정리 • 김귀숙(편집실) | 사진 • 양성진(큐브릭스튜디오 실장)



● 안산시는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다. 현재 8,200여 업체에 16만 8,000여 명의 근로자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일하고 있는 국가산업의 중추도시. 그리고 전국 최고의 도심녹지율을 자랑하는 녹색도시이며, 65개 국 8만여 명의 외국인이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중심도시. 천혜의 관광자원인 대부도를 중심으로, 미래 수도권 최고의 관광도시를 꿈꾸는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하다. 작년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운용의 건전성·효율성·계획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재정분석 우수단체'라는 이름을 하나 더

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해양...성장동력으로 삼다

● 작년에 세계 최대 규모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조력발전소인 '안산시화호조력발전소'가 준공하면서 안산은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문화예술, 관광해양, 체육 등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본부'를 신설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신설을 시작으로 대부도의 수



▲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안산시청 전경

얻었다.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비롯해 효율성·계획성 등에서 총 1,000점 만점에 789.11점을 받아 우수단체로 지정되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무가 급증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받은 것 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안산시측은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독려 등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

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소나무숲길·염전길·석양길·바닷길·갯벌길·갈대길·포도밭길 등 다양한 테마를 담은 7코스 총 74km의 '대부해솔길' 조성과 석양을 품에 안은 '구봉도 낙조전망대' 설치 등 관광자원을 확충했다. 바다향기수목원, 대송단지 내 30만 평 규모의 테마형 꽃밭, 갈대·자전거 탐방로, 갯벌 체험장이 어우러진 바다향기 테마파크도 현재 조성중이다.



또한 안산시에 속하면서 도 주민들조차도 인천을 통하여 왕래가 가능한, 풍도와 육도 섬 여행객을 위해 여객선이 방아머리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여객선 항로 개선과 대체 건조 등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부도의 관문인 방아머리에 2015년까지 국·도비를 합쳐 230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백사장, 생태숲과 놀이숲, 수변전망대, 분수조각공원 등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요트와 보트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 시설 2곳도 조성하는 한편, 세계 최고의 명품 소금생산지인 동주염전에 소금박물관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하다

● 현재 안산은 일자리 넘치는 활기찬 경제도시 건설에도 힘쓰고 있다. 대기업 유치단 출범과 범시민대기업유치추진위원회 구성, 기업유



- 1 안산 갈대습지공원의 탐방로
- 2 방아머리 해양관광 기반조성사업을 설명중인 김철민 안산시 시장
- 3 하늘에서 바라본 '대부도' 전경
- 4 경기도 미술관
- 5 일몰이 아름다운 '낙조전망대'

치 전담부서 신설 등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직을 운영중이다. 최근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한국몰렉스 등 9개 우량기업으로부터 약 1조 500억 원의 투자 유치와 더불어 약 2만 9,300명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냈다.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안산기업SOS이동시장실'도 운영중이다. 기업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들으며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지난 2010년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81개 기업체를 방문하고,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11번을 통해 애로사항 228건을 수렴하고 147건을 처리하는 등 기업애로 해결에 노력중이다.

아울러 안산스마트허브 구조 고도화와 인프라



개선, 안산 사이언스밸리 기술혁신 등도 펼치고 있다. 노후화된 단순생산형 산업공간을, 창조적인 고부가가치 생산활동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전체 예산 37%, 민생·복지 부문에 편성하다

● 안산은 전체 예산에서 37%를 민생·복지 부문에 편성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안산을 위해 복지 인프라 구축, 서비스 역량 강화, 복지체감도 높은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자활능력 향상, 활기찬 노후



를 위한 토털케어 서비스 제공, 민생·복지 중심의 예산 편성, 보육환경이 우수한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보편적 복지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건립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상록장애인복지관·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반월복지센터 설치·운영 등 복지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위기가정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연계·지원과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등 복지체감도 높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하다

● 안산시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교육열이 대단한 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교육 분야에서는 소득격차가 심해지면서 양극

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일반시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시는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자교실, 축구교실, 1학교 1특성화 사업 등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이 그 전락이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영어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도 지원 중이다. 또 주5일 수업으로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공모를 통한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측은 “학생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에 발맞춰 공공도서관이 멀리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도서관 7개를 완공했거나 현재 공사중에 있다. 2014년까지 1동 1도서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보접근과 이용격차 해소를 평생학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1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
2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안산기업SOS이동시장실

인 터 뷰 김철민 안산시 시장

시민과 하나되는 안산!

Q '민생과 소통'을 기치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 취임하던 2년 전부터 개발 위주의 행정에서 소통의 행정, 복지 중심 민생행정으로 시장 운영방향을 정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보편적 복지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을 이행하려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소통위원회, 기업SOS이동시장실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현장간부회의 등 시민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현장과 소통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10개 회사 신규 일자리 3만여 개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여성·가족 친화도시 지정, 노인·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해 복지와 민생을 함께 챙기는 시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김철민 안산시 시장



1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에서 주관하는 ‘공약이행 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됐고, ‘대한민국 소통경영 자치단체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Q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같은 맥락인지

●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갈등과 대립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쌍방 간의 소통은 반드시 있어야 하죠.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시민소통위원회’라는 방법을 택했어요. 시민소통위원회는 자연스런 토론의 장을 마련해

더 나은 정책대안을 찾고, 이를 통해 갈등 예방과 조정을 이끌고자 2010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분과 31명의 소통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과 더불어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이슈가 된 사안들에 대해 꾸준히 자문을 실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81번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Q ‘복지안산’을 추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 안산시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복지대상자가 많습니다. 거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생활린영주귀국 동포 등 다른 지역과는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갖고 있지요. 이런 특성은 안산시가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지정책 대부분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지자체 차원에서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수행하기에는 지역 간 형평



2

성이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강점으로 활용해, 민간자원을 끌어들이는 데에 노력했어요. 그 결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안산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이주민통역센터, 다문화 어린이도서관을 유치하는 등 이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했습니다.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사업도 우리 시의 특별한 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해소하는 건 물론, 기업(자영업자, 주민 등)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시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노인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현재 237개 경로당이 기업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물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이·미용 서비스, 웃음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복지는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남은 2년은 지역주민의 삶에 '희망'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Q 남은 임기 2년 동안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 우선 시화 MTV와 안산스마트허브를 구축해 미래 안산의 경제를 살릴 우량기업을 꾸준히 유치할 생각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말이죠. 또한 안산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산단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각종 입주기업 편의시설과 경영지원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일자리가 넘치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배려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감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고용-교육'을 연계한 통합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CCTV 확충과 안전 인프라 구축,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인 복지정책도 함께 추진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하는 선진 다문화도시를 만들 겁니다.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다문화마을 특구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거주외국인을 위한 지원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내·외국인 간의 사회통합 정책 구현으로 세계인이 이주하고 싶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하나로 소통하는 선진 다문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



- 1 일본 캐논사와 양해각서 체결식
- 2 2010년 9월 시민소통위원회 출범식
- 3 거주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다함께', 취업광장



충청북도 청원 '청남대'

휴식과 여유로운 산책... 아름다운 쉼터!

- 20여 년간 닫혔던 철문, 2003년 일반에 공개됐다. 충북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 1급 경호시설, 내비게이션에도 등록되지 않은 곳, 다섯 명의 대통령이 여름휴가와 설 연휴 등 모두 88회 400여 일을 보낸 곳. 이 모두 청남대를 설명하는 말이다. 충북도청으로 이전돼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정리 • 김귀숙(편집실)

사진 • 양성진(큐브릭스튜디오 실장), 청남대관리사업소

자료 • 청남대관리사업소, 한국관광공사



● “대통령 별장이 어찌 생겼을까?”하는 호기심 반, “얼마나 경관이 좋기에 이곳에 별장을 지었을까”하는 기대 반으로 충북 청원의 청남대로 향했다. 청남대 가는 길은, 향하는 길 자체로 절경이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청원C를 지나 청남대로 향하다 보면 자연스레 오른쪽으로 대청호를 두고 차 양옆으로 백합나무의 호위를 받는다. 대청호반은 굳이 설명치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드라이브코스. 반송이 양쪽으로 줄을 서 관광객을 반기는 청남대 정문. 검정색 철을 하고 있다. 청남대 매표소에서 청남대 본관까지 자동차로 20분 거리. 미리 예약을 하면 승용차로 청남대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다. 아님 직행버스로 갈아타고 들어가야 한다. 청남대 터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이곳이 임금이 머무는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곳으로 전해진다. 옥새봉, 월출봉, 작두산, 소위봉으로 둘러싸여 사방 어느 지역에서도 보이지 않는 데다 대청호가 청남대 인근을 휘감고 있어 풍수지리학자들에게 최고의 명당으로 손꼽혀 온 곳. 그래서일까. 청남대는 어느 곳에서 바라봐도 작품이다.



1 튼림나무가 사열하듯 맞이하는 진입로
2 청남대 본관의 2층 가족거실
3 청남대 본관의 1층 접견실



대통령의 휴가 엿볼 수 있는 전시물이 가득

● 청남대 본관 가는 길. 본관으로 가는 150여 미터 길에선 아름답고 잘 정돈된 소나무의 의장사열을 받을 수 있다. 버섯 모양으로 질서정연하게 자리잡은 소나무는 ‘청남대의 꽃’으로도 손색이 없다. 이 길이 ‘주도로’란다. 행사중엔 한가운데로 다니는 걸 피했을 정도라고. 같은 청와대 직원일지라도 이곳(A지역) 본관 지역은 출입증을 바꾸어 달아야 했고, 아스팔트 포장도 곱게 했다. 하지만 차량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기름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는 차량은 진입할 수 없었다. 본관 현관 입구에서는 우리나라 소나무인 135년 된 노송(적송·홍송)이 운치를 더해가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만나게 되는 청남대 본관. 이곳이 바로 대통령들이 가족과 머물며 생활하던 곳이다. 본관은 꼭 필요한 만큼의 규모로 지어졌다는 느낌이 든다.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것이. 내부시설은 예전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응접실, 거실, 침실, 욕실, 주방, 남자미용실, 여자미용실, 마사지실... 커다란 저택.

예전 외국영화에서 보던 모습처럼 중후한 모습을 하고 있다.

코너 코너를 돌 때마다 혹시라도 어느 낯익은 얼굴을 볼 수 있을 것만 같다. 내부에는 대통령의 휴가를 엿보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켜줄 전시물들이 가득하다. 폭신평신했던 카펫 위에 놓인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파와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면도기 하나하나가 신기한 구경거리.

본관을 중심으로 대청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시설들은 오각정, 수영장, 양어장, 골프장, 산책로, 초가정으로 이뤄져 있다. 둘러보는 데만도 딱 채워 두 시간은 걸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즐겼다는 '초길로'와 그 꼬트머리에 소박하게 지어진 '초가정'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작품이라한다.

고향의 추억을 되새기기 위함이라고.



오각정을 향한 산책로 풍경이 일품

● 대청호를 끼고 도는 오각정을 향한 산책로 풍경이 일품이다. '사진 찍는 곳'이라는 표지판을 따라 올라가면 9홀짜리 미니 골프장이 나온다. 정돈된 잔디와 낙엽, 적당히 높다란 산봉우리들이 어우러져 있다. "사진 한장 꼭 남겨야지" 싶은 곳이다. 온통 푸르른 잔디 뒤로 메타세쿼이아와 낙우송이 훌륭한 배경이 되어준다. 대부분의 대통령 내외가 즐긴 오각정에 올라서면 대청댐이 한눈에 들어온다. 반짝이는 물결과 하늘이 맞닿은 그림은 멋진 풍경화가 따로 없다. 파랑과 녹색의 조화를 뒤로 하며 오각정을 다시 내려오면 양어장과 음악분수가 보인다. 그리고 역사문화관을 나와 본관 쪽으로 가다보면 돌탑이 하나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남대 관리권이 충청북도로 이관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쌓은 것이란다. 집 안의 전등스위치 하나에도, 산책로의 가로등 하나도 무궁화 문양을 하고 있는 청남대. 대통령들이 이곳에서 휴가와 신년을 보낸 후 '청남대 구상'이라며 정국구상이 종종 발표되곤 했다. 세상의 좋은 풍광은 한데 모아놔구나 싶은 이곳을 거닐며, 각자 인생의 '청남대 구상'에 빠져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



- 1 양어장 위를 가로 지르는 산책로
- 2 골프나 낚시를 즐기고 휴식을 취했던 '그늘집'
- 3 대청호를 마주한 '조가정'
- 4 대통령 길

| 문의 |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043)220-6412~4 / 홈페이지 : chnam.cb21.net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 ‘삼겹살 원조 명성’ 되찾는다!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는 지난 3월 삼겹살을 충북 청주의 '대표 먹거리'로 만들려는 청주시의 프로젝트로 첫발을 내딛었다. 서문시장이 도심 공동화와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손님이 끊겨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데다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시장을 되살리는 특화된 아이템이 필요한 상황. 삼겹살 거리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 '삼겹살데이'로 정해 축제를 여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삼겹살거리에는 '금순이 은순이 생삼겹살집'을 비롯하여 13개의 삼겹살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 삼겹살은 간장구이와 소금구이 등 청주 특유의 전통 요리방법이 특징이다. 청주는 예로부터 삼겹살로 유명하다. 삼겹살 구이가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 청주. 1970년대 초, 고 박래봉 선생이 옛 사직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열었던 '황해식당'이 청주 삼겹살의 원조라고, 이곳의 삼겹살 구이 문화는 서울보다 최소 10년 정도 빨랐다.

구청서 충청북도청 예산팀장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안목 필요”



대담 · 박길성(한국행정DB센터 소장)
정리 · 김귀숙(편집실)
사진 · 양성진(큐브릭스튜디오 실장)

- 아무리 작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예산의 수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예산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요즘. 예산업무에선 “돈 흐름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충북도청 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구정서 예산팀장. 그는 예산업무가 수학적으로 더하고 빼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경험에 의해 투자 효과성과 낭비요인을 예측해야 한다고. 그래야 요즘같은 어려운 시대. 지방재정이 살아날 수 있단다. 32년 공직생활에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예산을 담당해서일까, 예산 관련 서류만 봐도 ‘이건 낭비성이다’, ‘이건 비효율적이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효율적이겠다’ 등 감이 잡힌단다. 그 감으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에 대해선 마른 갈레도 짜듯 하고, 미래산업과 투자 효율성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 효율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작년에 ‘지방재정 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올초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그를 만나 오랜 기간 쌓아온 그만의 노하우와 더불어 예산 효율화 비결을 들어보았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 충북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팀장을 맡고 있어요. 우리 예산팀은 지방예산 편성 총괄과 상생발전기금·복권기금사업, 15개의 자체기금 관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효율화 추진 등을 주로 하고 있지요.

다들 잘 알다시피 예산팀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도전략사업·공약사업·시책업무 등과 시·군 업무에 대하여 재원배분과 조정 역할을 합니다. 충북에는 모두 12개 시·군이 있는데, 이들 모두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업무를 담당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 1980년부터 청주시에서 세무과에 근무하다 1987년부터 충북도청으로 전입해 주로 회계부서에서 계약업무를 하고 있었죠. 당시 6급 승진 때 지금의 농업기술원 경리계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당시 농업기술원이 청원군 오창으로 신축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이 부진하자 회계업무에 밝은 제가 가게 됐죠. 부지 조성까지 하층 공사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1년 동안 정말 구석구석 훤히 외울 정도로 설계도면을 끼고 살았어요. 당시 농업기술원 조성부지가 약 8만 4,000평이었어요. 어느 날 공사현장을 점검하다 3층에서

내려다보니 농업기술원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면 지금 규모도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기술원 앞에서 미호천까지 약 5만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사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 좋은 행정재산이 될 거라 확신했죠.

남아있는 농업기술원 매각대금이 있어서 자금도 충분했죠. 하지만 당시 예산부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어요. 예산부서는 이를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추가 부지 매입을 적극 반대하더군요. 그때 “기회가 있다면 나도 한번 예산실에서 근무하겠다”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후 기술원 신축이전 공로를 인정받아 희망부서를 선택하러기에 예산실 근무를 자원했어요. 그 계기로 예산 업무를 계속하고 있네요.

초년병 시절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면...

● 공무원 초년병시절. 위에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파고들어 결과를 도출하기만 하면 되죠. 그렇지만 직급이 올라가고 예산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는 방향 결정에 대해 고민이 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한정된 예산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투입해야 효과적인가.

고민이 항상 있어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나뉘대로 생겨요.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도, 주민 수혜도, 대규모 사업의 재원배분,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지 등. 해마다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지만, 오랜 경험과 철저한 자료 분석으로 최적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전해주고자 애쓰죠.

올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 작년에 ‘지방재정 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지난 3월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저한테는 큰 영광이지만 “공은 부하에게 주고 과실에 대한 책임은 상사가 가져야한다”는 선배 공무원의 말이 새삼 떠올라, 믿고 따라준 직원들에게 미안하죠. 우리 직원들이 모든 공을 제게 몰아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지...

● 작년은 민선 5기의 실질적인 예산편성 첫해예요. 충북은 16개 시·도 중에서 재정력이 낮은 편입니다. 가뜰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두 차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출범한 민선5기는, 전략사업과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원조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지방예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기 도입·정착시켰죠. 충북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예



● 충청북도청 예산실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직원들

산 편성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 같아요. 다만, 예산효율화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해 절감했다고 시정요구도 있었죠. 결과적으로 절감액을 현안사업에 투자하면서 건전재정 운용과 재원 확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얻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기 도입했다는데...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국 시도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주민의 공감을 얻는 예산만이 옳다”는 생각이예요. 그 첫발인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만들기 위해 무척 애썼지요. 시민단체와 도가 함께 공감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발품과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어요. 작년 6월 조례 제정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마

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죠. 그리고 시범적으로 올해 당초 예산 편성 때부터 주민참여예산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있어요. 6개 분과 위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하였죠. 예산사업에 대해 토론을 거쳐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때 반영할 계획이에요.

‘도비보조사업 기간예고제’는 무엇인지...

● 다른 시·도에는 없는 우리 도만의 예산제도예요. 지금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민간이 전경비 3년 일몰제’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과거 보조사업은 한번 예산이 지원되면 사업

효과에 관계없이 계속 답습적으로 이어졌어요. 이때문에 재정부담이 해마다 가중되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연찬과 자체 토론에서 ‘도비보조사업 기간예고제’를 실시하자고 의견을 모아 시행하고 있어요.



사업성과와 효과성을 예측해 보조금 종료기간을 1·3·5년으로 각각 정하고 사전에 예고하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끝낼 수 있어서 재정부담도 줄이고, 새로운 사업 발굴도 가능해졌어요. 올해는 전수조사를 통해 331건 중 194건을 관리대상으로 했는데, 모두 28건에 209억 4,000만 원을 사업 종료시켰어요.

작년엔 예산을 크게 절감했다던데...

지방세수는 감소되는데 비해 재정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과감하게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가지원 보조사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지요. 행정운영에 필수적인 경상경비는 물론이거니와 일부 사업성 예산도 포함시켜 반복적이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조정했어요. 행사성·선심성 예산도 철저히 재검증해 모두 8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죠.

이러한 예산효율화 추진으로 내부반발이 엄청났어요. 사실 우리 도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은 거르고 걸러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기준경비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때 10% 절감하여 편성)하는데, 또 다시 절감예산을 내놓으라니 반발이 없을 리 없지요.

의회로부터 “우리가 승인해준 길 왜 못쓰게 하나”는 질책도 받았어요.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에요. 그러나 절감한 예산이 일자리 창출이나 현안사업 등 도정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이 눈녹듯 사라져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고 따라와 준 직원들이 참으로 고맙지요. 이런 보람 때문에 예산실을 떠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방재정운용 업무 편람’도 제작·배부하던데...

● ‘충청북도 예산업무 편람’은 우리 부서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업무 중 하나예요. 2005년부터 해마다 제작하고 있지요. 빠르게 변하는 지방재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예산실무 담당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각종 예산제도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도 수록하여 데이터베이스 역할도 하고 있어요.

매년 달라지는 제도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예외 규정 등을 포함시켜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였어요. 제작과정은 각 담당자별 사무분장대로 맡은 업무에 대해 초안을 작성해요. 달라지는 제도 개선사항이나 타 시·도 우수사례, 통계자료,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사례, e-호조시스템 등록요령,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분석하고 최대한 알기 쉽게 구성하여 예산 실무자가 아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요. 이제 매년 초가 되면 책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내부고객이 많을 정도로 호응도가 좋아 자긍심도 갖고 있어요.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 예산편성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지방예산의 시작이죠.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수예요. 그리고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에 충실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특히 감사원·행정안전부 감사, 국정감사 등의 자료를 반드시 참고해요. 또한 다른 시·도의 예산관련 지적사항도 항상 모니터링해서 우리 도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있어요.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때도 현장을 반드시 방문해 예산의 사용실태를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어요. 또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도 직접 방문해 살펴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만족할 만한 예산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는 예산편성의 기초과정이지요. '사전조사'와 '현장방문'. 예산편성



의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은...

●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방재정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어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 대 20인데, 지방예산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예요. 2011년 지방소비세 신설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불합리한 재정구조 때문이라고 봐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기득권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해요. 지방이 잘 살면 국가도 잘 살고, 지방이 어려우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국가경제도 어려워지잖아요. 하루 속히 지방재정이 좀 넉넉해져 지방도 지역적인 특색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가 살아나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이 앞당겨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



격월간 '지방재정'

전자책(e-book)으로도 만난다!

● 격월간 「지방재정」은 전자책(e-book)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자책(e-book)서비스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좌측하단 'e-book → 지방재정자료'를 클릭하거나,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ebook.lofa.or.kr)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도 언제 어디서나 책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외에도 지방재정관련 간행물, 업무자료, 보고서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호의 목차에서 원하는 내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자세히 볼 수 있으며, 통합검색과 페이지 확대·축소, 필요부분 출력 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